모더니즘의 메타퍼로서의 청년기
-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와 무질의 『생도 퇴를레스의 혼란』을 중심으로

Adoleszenz als Metapher für die Moderne - In Hesses Unterm Rad und Musils Die Verwirrungen des Zöglings Törleß -

저자 (Authors)
신혜선
Shin, Hyeseon

출처 (Source)
헤세연구 35, 2016.6, 23-43 (21 pages)
Hesse-Forschung 35, 2016.6, 23-43 (21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헤세학회
Koreanische-Hesse-Gesellschaft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96487

APA Style
신혜선 (2016). 모더니즘의 메타퍼로서의 청년기. 헤세연구, 35, 23-43.

이용정보 (Accessed)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165.***.117.111
2017/11/07 17:3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헤세연구 제35집 23~43

모더니즘의 메타퍼로서의 청년기
- 헤세의『수레바퀴 아래서』와 무질의『생도 퇴를레스의 혼란』을 중심으로 -

신 혜 선 (한국외대)

【목차】

1. '청년신화 Mythos Jugend'의 양면성
2. 모더니즘과 청년기
3.『수레바퀴 아래서』와『생도 퇴를레스의 혼란』연구
   3.1. 한스 기벤라트와 헤르만 하일너의 양극성과 모더니즘
   3.2. 퇴를레스의 혼란과 위기 그리고 모더니즘
4. 결론 및 전망 : 모더니즘의 야누스적 메타퍼로서의 청년기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1. '청년신화 Mythos Jugend'의 양면성

20세기 전환기에는 지식인들의 문화비판과 더불어 젊은 세대들에 의해 "청(소)년들[1]의 이상화 Idealisierung der Jugend"(Aufmuth 1979, 134)가 대두된다. 이러한 문화현상은 이미 19세기 중반에 니체나 라가르드 등 문화비평가와 철학가들에

1) 본고에서는 독일어의 'Jugend'를 청소년이라고 번역하기 보다는 보수적 기성세대에 대한 대립항으로의 '젊은이'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당시 독일의 세대관을 고려해 볼 때, 대부분 Jugend 개념은 우리말 "청년"을 지칭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성장단계에 있는 청소년을 포함하기도 하기에 본고에서는 포괄적으로 '청(소)년' 혹은 '청년' 이라고 표기하겠다. 또한 이는 다음 장에 뒤따르는 현대적 개념인 '아돌레스첸츠 Adoleszenz'에 대한 우리말 번역어로도 사용하도록 한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IP: 165.***.117.111 | Accessed 2017/11/07 17:38(KST)

의해 존재했고, 청년이 문화와 사회의 "구원과 개혁의 담지자 Träger des Heils und der Erneuerung"(Aufmuth 1979, 135)로서 예고되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세기 초반에도 역시 젊은 문학가들에 의한 청년예찬과 보수적 문화비판의 움직임이 있었다(Kolk 2003, 19f.).[2] 그러므로 이러한 문화현상은 20세기 전환기 근대화에 이르러 발생한 새로운 현상은 전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헬름제국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전체 교양시민들이 '청년 Jugend'이란 문화경향의 권력을 실질적인 것으로 파악하게 된다. 이로써 세기전환기의 청년은 "많은 것을 약속해주는 하나의 신화 vielbeschworener Mythos"(Peukert 1990, 176)가 된다. 청년과 젊음 Jugendlichkeit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한계를 모르는 생산성을 담지한 미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청년기는 '아직 아닌' 삶의 형식이다. 즉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도상에 위치한 아방가르드이다. Jugend: das ist die Lebensform des „Noch nicht", das ist die Avantgarde auf dem Weg in eine bessere Zukunft."(Hermann 1985, 224)

'청년 신화 Mythos Jugend' 의 견해는 청(소)년의 특성과 유사하게,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고 창의적이며 역동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쉽게 깨어질 수 있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에, 매우 대립적이다. 청년들은 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청년운동 Jugendbewegung을 통해 시민세계의 고루한 규범에 저항하며, 새로운 교육개혁운동과 생활개혁운동 등을 펼친다. 이는 20세기전환기 독일사회를 특징짓는 중요한 문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한다. 이때, 청년은 개혁을 위한 희망이자, 문화의 구원자로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견해와는 달리, 청년은 또한 문제적 존재이자 잠재적 위험요소로 다뤄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청년 신화'의 문화비판적인 청년운동은 현실적 삶에서 경험한 모순들을 미학적이며 화해적인 신화의 일반성으로 융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삶에서 이러한 억압적 모순들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감히 "청년으로서의 삶을 스스로 규정하고자 투쟁 den

2) 이 시기에는 '청년'은 젊음과 늙음의 대립을 통한 "하비투스의 차별성 die habituelle Differenz"을 강조하며 영웅화시키는 경향이 짙었다. 미래주의적인 청년컨셉의 전제하에 '청년 독일파 Junges Deutschland'의 작가들은 청(소)년 Jugend을 "새로움의 담지자이자, 변화를 위한 혁신적, 미래지향적 잠재력 Trägerin des Neuen, als innovatives, zukunftsträchtiges Potential für eine Veränderung"으로서 이해했다(Kolk 2003, 19f.).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IP: 165.***.117.111 | Accessed 2017/11/07 17:38(KST)

Kampf für ein selbstbestimmtes Jugendleben"(Hermann 1985, 224)한다. 하지만 당시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양한 문학작품들, 특히 수많은 학교소설 혹은 학생희곡들에서 보여주듯이, 청(소)년들의 자기규정을 위한 시도는 대부분 좌절된다. 청년들은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억압과 위협을 경험하게 된다(Vgl. Ulbricht 2000, 41).

그러나 젊은 세대와 진보적 · 개혁적 기성세대에게 '청년'은 끊임없이 이상을 추구하는 자아상의 은유일 뿐만 아니라, 세기전환기 고루한 독일사회를 위한 "문화재건의 암호 kulturregeneratorische Chiffre"(Ulbricht 2000, 44)로서 인식된다. 시민적 청년운동인 '반더포겔 Der Wandervogel'은 보수적인 부모세대와 권위적인 학교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다. 니체의 자유에 대한 생철학적 선언, 특히 그의 저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이 운동의 컬트저서가 되었으며, 청년들과 성인들 모두에게 문화비판적인 동인으로 작용한다. 루소의 사상을 통해 자극을 받은 개혁교육자들은 독일 빌헬름제국시대의 교육방식을 격렬히 비판하며 청년들의 자기해방적 반항운동에 갈채를 보낸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00년경 '청년'이란 단어는 문화와 사회의 개혁에 대한 희망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보수적인 종교인들과 교육자들 대다수는 젊은이들의 자유와 교육적 임무의 충돌에 대하여 전적으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3] 그들은 일상의 자유를 주장하는 청소년들을 훈육되지 않아서 제어불가능하고, 기존의 사회와 교육에 위협적 존재라고 간주한다. 함부르크출신 목사 클레멘스 슐츠 Clemens Schultz는 당시 청소년들을 매우 부정적인 위험한 징후로서 단정내리고, "할프슈타르켄 Halbstarken"(Peukert 1986, 63)[4]이라 지칭하며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할프슈타르켄'은 15-22세 연령대의 젊은 남자이다. 이는 주로 쇠퇴해 가는 대도시의 청소년이다. [...] 그는 주로 시장통에서 서성이며, 질서를 단호하게 거부하며 규칙성과 아름다움, 노동을 혐오하고, 특히 질서정연한 의무이행을 경멸한다. [...] 이들은 패거리를 이루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불쾌하고도 위협적인

3) 19세기 후반에 청(소)년들 Jugendliche의 개념은 법률용어로 규정되었는데, 이는 형법상 혹은 범죄상으로 처벌가능한 대상을 지칭하는 말로서 상용되었다.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주로 타락하고 신앙심 없으며 범죄적이어서 교화되어야 하는 이들로 인식되었다. 20세기 이후에야 비로소 시민적 청년운동으로 인하여 처벌대상이라는 낙인을 약화시킨다.

4) 우리말로는 '불량한 자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청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반영하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IP: 165.***.117.111 | Accessed 2017/11/07 17:38(KST)

> 힘을 지니고 있다. [...] 이러한 패거리들은 중범죄자 한 명보다도 훨씬 더 해롭고 위험하다(Peukert 1986, 63f.).[5]

'할프슈타르켄' 개념에서 볼 때, 산업사회의 청소년들은 "새로운 대중사회의 잠재적 위협 das Bedrohungspotential der neuen Massengesellschaft"(Peukert 1990, 188)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불량 청소년에 대한 우려에서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해결책으로 모색된다. 즉 청소년처벌법과 청소년감호시설 및 아동 · 청소년정신병원 등이 생겨난다(Kolk 2003, 25).[6] 이처럼 이 시대의 청소년컨셉과 교육컨셉은 모순적인 긴장관계 속에서 형성되어간다.

20세기 전환기는 모더니즘의 출발점이자 시작으로 이해될 수 있다. 새로운 계층과 다양한 생활방식의 출현, 현대적 미학과 예술관이 이 시대를 특징짓는다. 그리고 청년의 개념과 그 특성은 모더니즘(Vgl. Gumbrecht 1978, 93f.)[7]의 다면성을 나타내며, 이에 대한 메타퍼로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청년'은 예술가와 문학가에 의해서 시대성찰에 대한 대안으로 자신들의 작품에서 형상화된다.

2. 모더니즘과 청(소)년기

세기전환기에는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하는 다수의 문학작품들이 독일문학계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다. 이것은 앞장에서 밝힌 '청(소)년'의 모순적이고도 대립적인 개념과 발전을 바탕으로 펼쳐진 사회 · 문화의 문학적 성찰의 결

5) Der 'Halbstarke' soll der junge Mann im Alter von 15-22 Jahren sein, der zur verkommenen Großstadtjugend gehört [...] Er steht am liebsten müßig am Markte und [...] er ist der geschworene Feind der Ordnung, [...] darum haßt er die Regelmäßigkeit, ebenso alles Schöne und besonders die Arbeit, zumal die geordnete, regelmäßige Pflichterfüllung. [...] Diese Halbstarken [...] bilden den Mob, sind die furchtbare grauenerregende Macht, zumal im großstädtischen Leben; [...] Dieser Mob ist viel schlimmer und verderblicher als einzelne sog. schwere Verbrecher.

6) 후에 이 분야들은 청소년 보호, 청소년감호, 그리고 청소년양육으로 발전된다. 현대 사회교육학의 세 가지 중요한 분야를 구성한다(Vgl. Peukert 1986, 66).

7) '모더니즘'은 독일미학사에서 통용되는 'Moderne' 개념이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IP: 165.***.117.111 | Accessed 2017/11/07 17:38(KST)

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작품들에서 묘사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는 보수적이고 억압적인 교육제도 하에서 신음하는 개인의 서사로 읽을 수 있다(은정윤 2007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학교소설에 등장하는 청(소)년들은 독일제국의 근대화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모더니즘의 특징들에 대한 메타퍼로도 파악될 수 있다.[8] 이때에 청(소)년들은 그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순적 · 대립적 특징들에 의해, 사회의 규율과 개인의 자기규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대립을 경험하는 모든 개체들을 대변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 심리적 개체로서의 성장기를 '아돌레스첸츠 Adoleszenz'[9]라고 한다. 이 개념어는 신체적 · 물리적 성장기인 사춘기 Pubertät와는 구별되어, 개인의 성장에 있어서 자신의 어릴 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스스로 자신을 형성해가며 규정할 수 있는 '제2의 기회'이다(Vgl. King 2002). 사회 · 문화 · 심리적 측면의 특징들로 인해 이 개념은 '현대적 청(소)년' 개념으로 이해되며, 이는 근대화의 다양한 특성들과도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는 20세기 전환기의 학교소설에 나타난 청(소)년기의 특성들을 중심으로 '근대화 Modernisierung'의 메타퍼로서 '근대적 청(소)년'의 형상화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적 자기진술 속에서 청(소)년이라는 존재와 모더니즘의 관련성을 살펴봄에 앞서 모더니즘의 특성을 대략적으로 고찰해본다. '모더니즘' 개념은 다원성이라는 특성 하에서 이해가능하다. "모더니즘은 'modern'의 의미가 다양하게 이해"[10]되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한 내용이나 형식적 기준으로 규정하기 힘들

8) 이에 관련하여 홍길표는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와 『데미안』에 형상화된 인물들을 예술가적 존재로 파악하여 근현대 사회에서의 예술가의 위치에 대한 성찰로서 파악한 연구논문도 있다(홍길표 2011 참조).

9) 1990년대 이후 문화학적 문학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Adoleszenz'를 정의하는 데에 있어서는 기준이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에 대한 일관된 견해는 '사춘기 Pubertät'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단계가 제 2차 성징으로 상징되는 '신체적, 물리적' 성장발달을 그 주요 과제로 하는 반면, 'Adoleszenz' 단계는 더욱 심화된 '심리 · 사회적' 성장발달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현상으로서의 'Adoleszenz'를 '청소년기'로서 번역할 때에 그 대상이 지칭하는 바, 십대를 가리키는 말로 오인할 우려가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광의의 용어인 '청(소)년기'로서 지칭하고자 한다. 이에 관하여는 국내에서 더욱 심화된 담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IP: 165.***.117.111 | Accessed 2017/11/07 17:38(KST)

다(Gumbrecht 1978, 96). 그러나 문학에서는 근대화 즉, 모더니즘의 특정한 방식이 발견된다. 사회적 근대화는 양가성 Ambivalenz이라는 개념으로 이해가능하다. 즉 진보와 퇴화, 질병과 생명의 찬양, 이득과 손실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신경과민과 정신착란 그리고 광기"(Kimmich/Wilke 2006, 84) 역시 모더니즘의 징후에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더니즘의 특성들은 '경계성'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삶의 단계와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며, 문학 작품 속에서 구현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소설에 형상화된 근현대적 청(소)년기는 성장의 과정으로만 이해되어선 안 되며, 동시에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 끊임없이 타협과 대결이 가능한 여유공간 zwischen Individuum und Gesellschaft stets neu auszuhandelnden Spielraums"(Blasberg 2003, 9)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기전환기의 문학에서 청(소)년은 성인들의 생각에는 아직 덜 조직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창조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과도기적 단계로서 나타난다. 마리오 에르트하임 Mario Erdheim은 청(소)년기와 문화변동간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그 역동성과 창의성의 측면에 주목한다.

> 인간에게는 그 문화를 습득하고 보존하려는 능력과 마찬가지로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동인이 내재되어 있음에 틀림없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청(소)년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즉 한편으로 청(소)년기는 한 인간이 전승되는 것들에 대해서 의혹을 품고, 불안해 하며 새로운 전망을 탐색하도록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기는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해야하는 과업과 마주하게 한다(Erdheim 1984, 296).[11]

10) 굼브레히트는 'modern'의 개념을 각각 대립개념에 따라, 상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정의한다. 즉 '예전의 vorherig'의 대립항으로는 '현재 gegenwärtig'로, '옛 alt'의 대립항으로는 '새로운 neu', '영원한 ewig'의 대립항으로는 '경과하는 vorübergehend'의 뜻으로 이해가능하다.

11) Der Antrieb, Kultur zu verändern, muß im Menschen ebenso angelegt sein wie seine Fähigkeit, sie sich anzueignen und zu bewahren. Beide Momente spielen in der Adoleszenz eine entscheidende Rolle: Die Adoleszenz treibt den Menschen einerseits dazu, das Überlieferte in Zweifel zu ziehen, zu verunsichern und neue Perspektiven zu suchen, und andererseits stellt sie ihn vor die Aufgabe, sich nicht zu verlieren und die Kontinuität zu wahren.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IP: 165.***.117.111 | Accessed 2017/11/07 17:38(KST)

에르트하임은 청년기의 불안정성을 오히려 "실험의 단계 Experimentierphase"(Erdheim 1984, 299)라는 긍정적인 단어와 연관지어 설명한다. 이 단계의 청년들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팽창적 행동과 기존의 위치를 포기해야하는 수축적 행동 사이에서 진동하는 모습을 보인다(Vgl. Erdheim 1984, 299). 이러한 실험적 경험들을 거쳐 청년들은 "문화혁신을 위한 기회 Chance zur Kulturerneuerung"(Erdheim 1984, 299)를 얻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 Adoleszenz' 개념은 프로이트의 "유년기의 반복인 성적 발달로서의 두 번째 단계"(Erdheim 1984, 316)와는 구별된다. 프로이트와는 달리, '청(소)년기'는 이전 유소년기의 트라우마를 수정하여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켜 재생산할 수 있는 제 2의 기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청(소)년기'라는 키워드는 사회의 근대화의 산물이자, 동시에 근대화의 패러다임의 반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세기전환기 거의 동일한 시기에 출판된 두 작가의 학교소설을 '청(소)년기'와 모더니즘의 관련성에 근거하여 고찰하겠다. 헤르만 헤세의 초기 작품『수레바퀴 아래서 Unterm Rad』(1903/04 신문연재/1906 출판)와 로베르트 무질의 처녀작이자 첫 성공작『생도 퇴를레스의 혼란 Die Verwirrungen des Zöglings Törleß』(1905)이 그것이다. 이 연구는 발달심리학에 바탕을 둔 청(소)년기의 특징과 문화사회학적 조건들을 함께 고찰하게 될 것이다. 20세기전환기의 뚜렷한 특징으로 각인되는 모더니즘의 메타퍼로서 청(소)년 문제성을 살펴본다. 작품에서 형상화된 다양한 청(소)년기는 문화혁신의 가능성만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와 일탈, 좌절과 파멸의 측면이 강조된다. 동시에 문학영역에서 인간 삶의 개별성과 사회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타협에 관련하여, '청(소)년' 주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그의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3.『수레바퀴 아래서』와『생도 퇴를레스의 혼란』연구

3.1. 한스 기벤라트와 헤르만 하일너의 양극성과 모더니즘

소설『수레바퀴 아래서』의 주인공인 한스 기벤라트와 그의 친구 헤르만 하일너는 이제 막 청(소)년기의 단계에 진입한 인물들이다. 그들은 가족들, 즉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IP: 165.***.117.111 | Accessed 2017/11/07 17:38(KST)

그들의 일차적인 애정객체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서서히 그들의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간다. 이러한 과도기상황은 "저항과 순응, 확신과 거부로 이뤄진 긴장의 장 Spannungsfeld von Widerstand und Anpassung, von Bewähren und Versagen"(Gutjahr 1997, 126)에 내맡겨진 상태이다. 청소년기의 과도기 문제성은 한스와 헤르만 두 인물 속에서 양분되어 나타난다. 모더니즘과 관련하여 이 두 인물은 모더니즘의 양면성, 즉 '손실과 이득 Verlust und Gewinn'으로서 이해된다. 작가는 한스 기벤라트와 헤르만 하일너라는 두 인물을 뚜렷한 이항대립관계로서 설정한다. 우선 이들의 체질과 개성의 상이한 양극성이 강조된다.

> 서로 어울리지 않는 친구 관계도 있었다. 가장 어울리지 않는 예로 헤르만 하일너와 한스 기벤라트를 꼽을 수 있었다. 그것은 자유분방한 소년과 성실한 소년, 시인과 노력가의 조합이었다. 물론 둘 다 영리하고 재능있는 소년들로 꼽히기는 했다. 하지만 하일너가 천재라는 반쯤 조롱섞인 평판을 듣는 반면, 한스는 모범소년이라는 평을 얻고 있었다(UR 1970, 78).[12]

이 글에서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ungleichste" 짝으로서 서술된 표현에 청(소)년기의 양가성이 투영된다. 페터 블로스 Peter Blos의 분류에 따르면, 초기 아돌레스첸츠에는 일차적인 애정객체로부터 분리되어, 동성인물과의 친밀하고 이상화된 우정을 통해 새로운 애정의 객체를 찾고자 노력한다(Vgl. Blos 1962, 87). 초기 아돌레스첸츠 단계에 대개의 우정관계는 "나르시시즘의 도식 dem narzißtischen Schema"(Blos 1962, 87)을 따른다. 나르시시즘의 특성은 청(소)년기의 필수불가결한 특성이다. 그리고 이 나르시시즘은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간주된다(Vgl. Kimmich/Wilke 2006, 47). 나르시시즘은 프로이트에 따르면 자기애의 병적인 증후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에르트하임의 문화

12) 『수레바퀴 아래서 Unterm Rad』는 이후 UR로 축약하여 페이지 숫자와 함께 명기.
Es gab auch ungleiche Paare. Für das ungleichste galten Hermann Heilner und Hans Giebenrath, der Leichtsinnige und der Gewissenhafte, der Dichter und der Streber. Man zählte zwar beide zu den Gescheiten und Begabtesten, aber Heilner genoß den halb spöttisch gemeinten Ruf des Genies, während der andere im Geruch des Musterknaben stand.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IP: 165.***.117.111 | Accessed 2017/11/07 17:38(KST)

심리학적 접근으로 나르시시즘은 "새로운 자아의 점유, 심지어는 자아의 과대평가 die erneuerte Besetzung des Selbst, sogar dessen Überschätzung"(Erdheim 1984, 301)를 통해 외부세계를 의심하고, 제한된 불안정을 견딜 수 있게 한다. 청(소)년기의 나르시시즘은 따라서 전지전능판타지 Omnipotenzfantasie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소설에서 한스에 대한 헤르만의 우정은 나르시시스적이며 자기중심적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헤르만에 대한 한스의 감정은 한편으론 끊임없는 경탄과 은밀한 긍지, 다른 한편으로는 열등감과 육체적 · 심리적 과부하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한스에게는 전지전능판타지, 즉 청(소)년기의 나르시시즘이 결여되어 있다.

> 이 두 소년의 우정은 특별한 관계였다. 하일너에게 우정은 하나의 오락이며 사치였고, 쾌적함과 멋대로의 기분전환이었다. 그러나 한스에게 우정은 자긍심으로 지켜온 값진 보물인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기도 했다(UR 82).[13]

헤르만 하일너의 특성에 대한 묘사는 청(소)년기 나르시시즘의 도식에 대한 자세한 서술로서 표현되고 있다.

> 착한 한스 기벤라트는 친구 하일너에게는 그저 손쉬운 장난감이나 애완고양이에 지나기 않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었다. 한스도 가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었다. 하지만 하일너는 한스를 필요로 했고, 그래서 그에게 애착을 느끼고 있었다. 하일너는 자신이 신뢰할 수 있고,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며, 자신에게 경탄을 보내는, 누군가를 원했던 것이다. 자기가 학교와 인생에 대하여 혁명적인 발언을 할 때, 자신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또한 왠지 울적해질 때, 자신의 머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자신을 위로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젊은 시인에게는 이러한 성향을 지닌 모든 이들이 그러하듯이 가끔 원인모를 다소 어리광스런 우울증적 발작을 일으키

13) Die Freundschaft der beiden war ein sonderbares Verhältnis. Sie war für Heilner ein Vergnügen und Luxus, eine Bequemlichkeit oder auch eine Laune, für Hans aber war sie bald ein mit Stolz gehüteter Schatz, bald auch eine große, schwer zu tragende Last.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IP: 165.***.117.111 | Accessed 2017/11/07 17:38(KST)

> 기도 했다. 그 이유는 어린 영혼으로부터의 조용한 이별, 그리고 목적도 없이 넘쳐흐르는 젊음의 열기와 예감과 욕망 때문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나타나는 이해하기 힘든 어두운 충동이었다. 그럴때면 하일너는 연민과 애무를 받고싶은 병적인 욕구를 느꼈다. 예전에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던 귀여운 아이였다. 하지만 아직 여자들의 사랑을 받을 만큼 성숙하지 않은 지금에는 온순한 친구만이 그를 위로해 줄 유일한 가능성이었다(UR 82).[14]

헤르만 하일너의 청(소)년기 진행과정에 있어서 친구 한스는 애정객체를 전이하기 위한 과도기적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나르시시즘의 성향에 기인한 인정과 경탄에 대한 요구는 그의 자의식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와는 달리, 한스에게는 이러한 나르시시즘적 전이과정이 결여된다. 한스는 수동적으로 머물면서 자신의 욕구와 소망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채, 그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묵묵히 수행한다. 양극화된 대립적 인물구도는 청(소)년들의 나르시시즘과 열등감의 대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삶의 단계에 '능동적-수동적' 충동에 대한 이항대립이기도 하다. 이러한 양극적 충동은 자아와 객체, 외부세계와 관련하여 다방면에 영향을 끼친다. 특히 애정객체의 수용과 점유여부, 감정조절, 행동변화와 현실문제에 대한 해결능력 등을 책임지고 있다. 이런 불안정성과 불일치성 Instabilität und Inkongruität은 『수레바퀴 아래서』에서 한스 기벤라트와 헤르만 하일너의 우정관계를 통해 묘사되고 있으며, 이는 뚜렷한 청(소)년기의 특징이며 모더니즘의 특성에 대한 은유이다(Vgl. Blos 1962, 90). 수동-능

14) Es konnte scheinen, als wäre der gute Giebenrath für seinen Freund lediglich ein angenehmes Spielzeug, sagen wir eine Art Hauskatze, und Hans selber fand das zuweilen. Aber Heilner hing doch an ihm, weil er ihn brauchte. Er musste jemand haben, dem er sich anvertrauen konnte, der ihm zuhörte, der ihn bewunderte. Er brauchte einen, der still und lüstern zuhörte, wenn er seine revolutionären Reden über Schule und Leben hielt. Und er brauchte auch einen, der ihn tröstete und dem er den Kopf in den Schoß legen durfte, wenn er melancholische Stunden hatte. Wie alle solche Naturen litt der junge Dichter an Anfällen einer grundlosen, ein wenig koketten Schwermut, deren Ursachen teils das leise Abschiednehmen der Kinderseele, teils der noch ziellose Überfluß der Kräfte, Ahnungen und Begierden, teils das unverstandene dunkle Drängen des Mannbarwerdens sind. Dann hatte er ein krankhaftes Bedürfnis, bemitleidet und gehätschelt zu werden. Früher war er Mutterliebling gewesen, und jetzt, solange er noch nicht zur Frauenliebe reif war, diente ihm der gefügige Freund als Tröster.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IP: 165.***.117.111 | Accessed 2017/11/07 17:38(KST)

동으로 양분된 충동은 한스와 헤르만의 관계에서 명확한 대립을 보이며, 두 인물의 발전과정과 소설의 결말이 상이하게 나타나도록 한다. 헤르만 하일너의 경우, "어떤 순진한 슬픔 etwas kindlichen Traurigkeit"에 휩싸여서 "죽을 듯이 불행하다고 totunglücklich" 느낄 때면, 그는 자신의 우울을 격앙된 방식으로 "죄 없는 한스에게 über den unschuldigen Hans"(UR 82) 마구 퍼부어대는 것이다. 그러나 한스는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한 채 자기 속에 억누르고 잠잠히 머무른다. 한스의 수동성은 결국 자신을 심리적 · 육체적 쇠약함으로 이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헤르만 하일너와의 우정에 대한 한스의 자긍심은 이런 수동성에 바탕을 둔다. 능동적인 충동표출을 익히지 못한 한스의 경우, 오로지 수동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스스로에 대한 자기가치를 느끼는 것이다.

> 이러한 고뇌에 억눌리고 시달려온 한스는 남은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급한 마음으로 공부에 매달렸다. 하지만 공부는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갔다. 예전에 앓던 두통이 다시 재발된 것도 당연하다. [...] 이 기인과의 우정이 한스를 지치게 만들었고 때 묻지 않은 자아의 순수한 존재를 병들게 했다. 한스도 이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하일너가 울적해 하고 슬퍼하면 할수록 더욱더 애처로운 생각이 들었다. 또한 자신이 친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자각이 한스를 더욱 한층 다정하고 뿌듯하게 만들었다(UR 82f.).[15]

헤르만 하일너의 청(소)년기 과정에 있어, 감상적인 문학관과 예술적인 성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의 발전과정에서 창의성과 창작능력은 이상적인 자아상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된다. 창작은 하일너에게 연장된 '여유공간 Spielraum'을 제공한다. 그것은 단순히 억압적인 학교현실에서의 도피처를 제

15) Von diesen Leidensszenen bedrückt und gepeinigt, stürzte sich dieser in den ihm übrig bleibenden Stunden mit hastigem Eifer in die Arbeit, die ihm doch immer schwerer fiel. Daß das alte Kopfweh wiederkam, wunderte ihn nicht weiter; […]. Zwar fühlte er dunkel, daß die Freundschaft mit dem Sonderling ihn erschöpfte und irgendeinen bisher unberührten Teil seines Wesens krank machte, aber je düsterer und weinerlicher jener war, desto mehr tat er ihm leid und desto zärtlicher und stolzer machte ihn das Bewusstsein, dem Freunde unentbehrlich zu sein. Zudem spürte er wohl, daß dieses kränkliche Wehmutwesen nur ein Ausstoßen überflüssiger und ungesunder Triebe war und eigentlich nicht in Heilners Wesen gehörte, den er treu und aufrichtig bewundert.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IP: 165.***.117.111 | Accessed 2017/11/07 17:38(KST)

공할 뿐만 아니라, 자기규정을 위한 투쟁의 공간이기도 하다. 하일너의 아름다움에 대한 열정과 창조적인 재능은 한스 기벤라트가 경탄하고 존경하는 주된 이유이다. 이는 청(소)년기에 들어선 한스에게 성장에 대한 열망의 감정을 가지게 한다.

> 이제까지 시인의 세계는 한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다. 지금 그는 난생 처음 아름답게 흘러나오는 언어와 사람을 홀리게 만드는 영상과 듣기 좋은 음율이 지닌 매혹적인 힘을 아무런 저항 없이 느끼게 되었다. 새로이 열린 세계에 대한 한스의 숭배는 친구를 향한 경탄과 더불어 하나의 감정으로 자라나고 있었다(UR 83).[16]

수동성만을 지니고 있는 한스 기벤라트는 자기정체성형성이나 자기규정에 도달하지 못하며, 오히려 삶의 방향성과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헤르만 하일너는 자신의 여유공간에서 자아를 찾고, 스스로를 규정한다. 즉. 그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청년기에 보이는 창의적인 과정은 "내면적 변화에 요구되는 긴박한 과제를 수행하려는 노력 das Bemühen, dringende Aufgaben der inneren Verwandlung zu vollbringen"(Blos 1962, 147)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자기들의 고립된 상황을 극복하고 외부세계와 소통하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뤄지는 창의적인 활동은 나르시시즘적 요구를 만족시키며, 현실에 닻을 내리는 데 기여하고, 타고난 재능을 지속적인 삶의 형태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한다. 이때, 창조적인 활동은 단지 충동을 만족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청년기의 충동을 극복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한다. 청(소)년기 단계에서의 충동극복이 실패되었을 때, 두려움, 죄책감, 자기판단 및 자기비하를 통해서 인격이 위협을 받는다. 바로 한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스 기벤라트와 헤르만 하일너 두 명 인물을 통해 이분된 청(소)년기 과정에 드러나는 우정과 나르시시즘, 대립적 충동관계, 그리고 창의적 활동 등은

16) Bis dahin war ihm die Welt der Dichter wenig bekannt und unwichtig gewesen, nun spürte er zum erstenmal widerstandslos die trügerische Gewalt schönfließender Worte, täuschender Bilder und schmeichlerischer Reime, und seine Verehrung für diese ihm neuerschlossene Welt war mit der Bewunderung des Freundes zu seinem einzigen Gefühl ineinandergewachsen.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IP: 165.***.117.111 | Accessed 2017/11/07 17:38(KST)

다양한 모더니즘의 이중적 모습들에 대한 메타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즉, 기회와 위기, 자기규정과 자기부정에 따른 '이득과 손실' 또는 '성공과 실패'의 모습이 명시적으로 드러난다.[17]

3.2. 퇴를레스의 혼란과 위기 그리고 모더니즘

소설『생도 퇴를레스의 혼란』에서 청(소)년기는 위기의 과정으로 묘사된다. 선행연구들은 이 소설을 대체적으로 육체적인 성장단계에 있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성(性)적 일탈과 혼란을 서술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주제인 주인공의 세계에 대한 문제제기와 "자아찾기 Selbstfindung"(Minder 1962, 61)는 사춘기 Pubertät의 혼란이 아니라, 바로 청(소)년기의 혼란이다. 다시 말해서 이 혼란은 사회적 · 심리적인 유예기간의 의미에서 과정적이며 실험적인 것이다. 이 단계는 다양한 육체의 성장과정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 심리적인 적응의 단계를 지향하며, 육체적인 변화 자체뿐만 아니라, 관심과 사회적 행동, 감정의 질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품속에 묘사된 청(소)년기의 과도기에 발생하는 혼란들은, 세기전환기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징후인 "다양한 기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오차속의 불안정 Unsicherheit im Schwanken zwischen verschiedenen Maßstäben"(Žmegač 1981, 13)으로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 · 문화화과정을 겪는 청년기의 청(소)년은 전승되어 오던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롭고 구속되지 않은 관점을 추구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변화의 리듬에 영향을 끼치고자 한다(Vgl. Erdheim 1982, 290).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청년기는 젊은이들에게 자아를 잃지 말고 연속성을 유지하라는 과제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 퇴를레스의 혼란과 불안정은 청(소)년기와 모더니즘의 문화사이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즉 기존의 지각방법 및 인식과정에 대한 의구심과 위기위식, 그리고 거기서 유래된 불안정과 내면적 위협 등

17) 특히 창의적인 헤르만 하일너라는 인물을 모더니즘 예술가적 모습으로 파악하여 논의한 연구도 있다(홍길표 2010 참조). 그러나 본고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두 인물이 처한 특정한 삶의 단계인 '근현대적 청(소)년기'의 특성이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IP: 165.***.117.111 | Accessed 2017/11/07 17:38(KST)

이 그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작가 무질은 그의 소설에서 “자아와 세계 간에 탈경계화의 불안스런 경험 die beunruhigenden Erfahrungen der Entgrenzung des Ichs und der Welt”(Zeller 2001/2002, 198)을 이해할 수 있는 적합한 형식을 보여준다.

문화변동의 역동성과 관련해 경계에 대한 회의는 청(소)년기의 ‘경계넘기’와 ‘규범침해’로서 소설 속에서 나타난다. 특히 이것은 모더니즘의 근본적인 특징이다. 티쯔만 Titzmann은 문학에서 “경계짓기와 경계허물기 Grenzziehung und Grenztilgung”(Titzmann 2002, 181)는 사실주의와 초기 모더니즘의 가장 커다란 구분점이라고 고찰한다.

> 이 모든 경우는 자신에 대한 실험이다. 이 경우들에서 주체는 우연에 의해서든 의도적으로든 자신 안의 경계들, 그리고 자신의 무의식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잠재성을 둘러싼 경계를 허물고, 전승된 가치체계 또는 규범체계를 넘어서는 자아탐구와 자아실현이라는 과정을 허용한다(Titzmann 2002, 197).[18]

그러므로 청(소)년기 발전과정에서 필요불가결한 과정이 경계를 시험하고 그 제한을 벗어나 자신의 창의적 잠재력을 실험해 보는 것이다(Vgl. King 2002, 30). 그리고 이것은 바로 모더니즘의 프로젝트로 치환될 수 있는 특성이다. 무엇보다도 청(소)년기 퇴를레스의 혼란과 발전은 잠재적인 불연속성의 형태와 역동적인 주체 속에 나타난다. 이러한 연관관계에서 소설 『생도 퇴를레스의 혼란』은 모더니즘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작품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작품은 “자아의 문제성 Problematisierung des Ich”과 “위기로서 체험된 지각과 인식의 고양에 대한 성찰 Reflexion über eine als Krise erfahrene Exaltation der Wahrnehmung und der Erkenntnisse”(Mix 1995, 243)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소설의 시작부분에서 퇴를레스는 그의 친구 바이네베르그와 함께 마을의 매춘부 보제나에게 간다. 이러한 퇴를레스의 행동은 단지 젊은이의 성적인 욕구

18) Um ein Experiment mit sich selbst handelt es sich aber in all diesen Fällen, wo das Subjekt, zufällig oder gewollt, die Grenzen in sich, die Grenzen gegen sein eigenes Unbewusstes und sein unrealisiertes Potenzial tilgt und sich auf einen Prozess der Selbstfindung und Selbstverwirklichung jenseits des tradierten Wert- und Normensystems einlässt.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IP: 165.***.117.111 | Accessed 2017/11/07 17:38(KST)

를 해소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기숙학교에서 얻게 된 내면적 권태에서 벗어나 경계를 이탈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퇴를레스는 이제껏 자기의 유소년적 정체성에서 벗어나 사회의 규범과 자기의 감정에 대항하는 저항의지를 가지고 이탈행동을 경험한다. 그에게 이러한 행위는 "일종의 자기희생의 잔인한 제사의식 ein grausamer Kultus der Selbstaufopferung"(Musil 2000, 40)[19]으로 인식된다.

> 하지만 바로 그거였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공포, 이러한 자포자기가 매번 그를 다시 유혹했다. 자신의 특권에서 빠져 나와 미천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것, 어쩌면 그들보다 더 밑으로 추락하는 것이었다. [...] 보제나는 그에게 비천함의 극치를 달리는 존재였고, 그녀와의 관계와 그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느낌들은, 일종의 자기희생의 잔인한 제사의식처럼 여겨졌다. 이전에 그를 감쌌던 모든 것, 그러니까 그의 특권적 지위, 사람들이 그에게 주입하였던 사고와 감정들, 그리고 자신에게 아무것도 준 게 없으면서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것들을 모두 버리고 가야 한다는 것은 그에겐 또 다른 매력이었다(T 40f.).[20]

화자는 이제껏 타자에 의해 규정되어 온 퇴를레스의 유소년적 정체성을 "주입 einimpfen"이라는 단어를 통해 강조한다. 퇴를레스의 행위는 경계를 의심하고, 경계를 이탈하는 청(소)년기로서의 도약적 '출발 Aufbruch'이다. 이는 '실험과정'으로의 청(소)년기 특성이 잘 드러난다.

매춘부 보제나는 소위 '고매한' 사람들인 바이네베르크의 어머니와 숙모 그리고숙부의 감춰진 치부에 대해 암시적으로 폭로한다. 그녀가 하녀로서 그들을 섬기면서 봤던 그들의 비도덕적 행위들을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얘기할 때,

19) 이후 T로 축약하여 페이지 숫자와 함께 명기.

20) Aber das war es! Nur das! Nichts anderes! Diese Angst, dieses Sichaufgeben lockt ihn jedes Mal von neuem. Dieses Heraustreten aus seiner bevorzugten Stellung unter die gemeinen Leute; [...] Božena erschien ihm als ein Geschöpf von ungeheuerlicher Niedrigkeit und sein Verhältnis zu ihr, die Empfindungen, die er dabei zu durchlaufen hatte, als ein grausamer Kultus der Selbstaufopferung. Es reizte ihn, alles zurücklassen zu müssen, worin er sonst eingeschlossen war, seine bevorzugte Stellung, die Gedanken und Gefühle, die man ihm einimpfte, all das, was ihm nichts gab und ihn erdrückte.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IP: 165.***.117.111 | Accessed 2017/11/07 17:38(KST)

퇴를레스는 기묘하게도 자기 어머니를 연상하며, "의식의 경계 Grenzen des Bewusstseins"가 허물어지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한다.

> 그(퇴를레스)는 그때 갑자기 자기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러던 것이 이제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해졌다. 그것은 그의 의식의 경계를, 의식의 언저리를 화살과도 같이 빨리 스쳐지나간 것이기에 사고(思考)라고 부를 만한 것도 아니었다(T 44).[21]

이런 갑작스런 돌출현상에 대하여 퇴를레스는 계속해서 서로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반문한다. 이 지점에서 퇴를레스가 지금까지 확고하다고 여겨온 '인간이해'와 '세계질서'의 경계는 용해되고 해체된다(Vgl. Zeller 2001/2002, 193).

퇴를레스에게 있어서 자신의 어머니와 매춘부 보제나, 이 두 여인의 비교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코 합치될 수 없는 두 명의 존재를 나란히 세워놓는 다는 생각조차도 그에겐 불경한 일로 여겨졌다. 보제나는 "모든 성적인 욕망의 덩어리 ein Kräuel aller geschlechtlichen Begehrlichkeiten(T 45)"이었고, 사회에서 추락하여 경멸받는 아웃사이더이다. 그러나 퇴를레스의 어머니는 흠 하나 없이 완벽하며 도달할 수 없는 "욕망의 저편의 별처럼 wie ein Gestirn jenseits alles Begehrens"(T 45) 그의 삶의 높은 곳에 위치한 존재였다. 그의 어머니는 모든 규범과 질서 그리고 도덕을 대표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이렇게 뚜렷했던 두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그는 혼란을 느끼게 된다.

> 보제나라는 이 비천한 존재의 여자로부터 나의 어머니가 떠올랐던 것은 무슨 연유일까? 그리고 사고의 근접하면서 그녀가 나의 어머니에게 더 가깝게 다가서 있는 것은 또 무슨 이유일까? 이런 여자가 우리 어머니같은 사람을 입에 올릴 때면 당연히 머리를 조아려야 할 텐데도 전혀 그러지 않는 것은 또 왜일까? 이 둘 사이에 어떤 공통점도 존재하지 않는 다는 사실은 왜 깊고 깊은 수렁처럼 표현할 수 없는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T 44f.)[22]

---

21) Er hatte damals plötzlich an seine eigene Mutter denken müssen, und dies hielt nun fest und war nicht loszubekommen. Es war ihm nur so durch die Grenzen des Bewusstseins geschossen - blitzschnell oder undeutlich weit - am Rande - nur wie im Fluge gesehen - kaum ein Gedanke zu nennen.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IP: 165.***.117.111 | Accessed 2017/11/07 17:38(KST)

경계가 허물어진 원인을 몰라 야기되는 퇴를레스의 불안정은 그가 수학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인식욕을 갖게한다. 왜냐하면 "죽은 과목이라고 생각했던 수학이 돌연 매우 생명력있는 살아있는 과목처럼 ihm nun einmal aus einer toten Lernaufgabe unversehens etwas sehr Lebendiges geworden zu sein"(T 105) 보였기 때문이다. 수학에 대한 새로운 경외심 때문에 그는 심지어 수학교사에 대해서 "일종의 시샘의 감정"까지 느끼게 된다. 그 교사는 "모든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잠겨진 정원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이는 것처럼 그 지식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리라 eine Art Neid gegen den Professor, dem alle diese Beziehungen vertraut sein mussten und der ihre Kenntnis stets bei sich trug wie den Schlüssel eines versperrten Gartens"(T 105) 고 믿었기 때문이다. 수학교사와의 접촉을 통해서 인식을 얻고자 하는 노력과 수학교사가 추천한 칸트읽기는 퇴를레스에게 실망만을 안겨준다. 이는 청(소)년기의 형성기 특성 중 자신을 권위적인 것들로부터 분리하여 스스로의 '사고력 Denken'를 지니고자 추구하는 모습이다.

이렇듯 경계의 해체와 인식의 혼란을 경험하는 청(소)년기의 단계에서 퇴를레스는 규범위반을 통해 자아의 분열을 겪는다. 즉 바지니와의 동성애적 관계를 통해서이다.

> 이렇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상태 속에서도 그는 언뜻 언뜻 깨어나 절망적으로 하나의 생각에 매달렸다. '이건 내가 아니다!... 내가 아냐!... 아침에야 비로소 난 다시 내가 된다!... 아침이 되어야...'(T 153)[23]

이성과 오성이 마비되고 부인된다. 이처럼 가능성의 개방을 통해 야기된 청

22) Was ist es, das es ermöglicht, daß diese Božena ihre niedrige Existenz an die meiner Mutter heranrücken kann? Daß sie sich in der Enge desselben Gedankens an jene herandrängt? Warum berührt sie nicht mit der Stirne die Erde, wenn sie schon von ihr sprechen muß? Warum ist es nicht wie durch einen Abgrund zum Ausdruck gebracht, daß hier keine Gemeinsamkeit besteht? Denn, wie ist es doch?

23) Nur in dem Augenblicke, als es ihn fortriß, wachte er sekundenlang auf und klammerte sich verzweifelt an den einen Gedanken: Das bin nicht ich!... nicht ich!... Morgen erst wieder werde ich es sein!... Morgen...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IP: 165.***.117.111 | Accessed 2017/11/07 17:38(KST)

(소)년기의 위기는 모더니즘의 특성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위기의 청(소)년기에 처한 젊은이들처럼 모더니즘 역시 잃어버린 상태와 도래하는 미지의 상태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하고 진동한다. 이러한 점에서 퇴를레스가 자발적으로 체험한 혼란과 위기의 국면들 속에서 모더니즘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다.

4. 맺으며: 모더니즘의 아누스적 메타퍼로서의 청소년

20세기전환기 독일문학계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독일학교소설의 주인공들은 대개 '젊은이', 특히 현대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청(소)년기'를 사는 이들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당시에 억압적 · 보수적 교육제도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학생들의 초상만은 아니다. 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특성들과 그 행태들은 문화사회적으로 모더니즘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며, 따라서 이 청년들의 모습은 모더니즘의 메타퍼로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단계를 지나는 젊은이의 발전과정에서 '개체화과정 Individualisierungsprozess'은 바로 모더니즘의 컨셉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 과정은 상호대립성과 상호보완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 다룬 두 소설 속 청(소)년기의 주인공들은 양극 사이를 진동하며 이런 대립적인특성을 자신의 삶으로 체험해 나간다. 따라서 이들은 '개체화와 규범화'라는 모더니즘의 주요한 양면성의 대립적 특성에 대한 메타퍼이다. 이들은 위기에 처하여서 극복하거나 좌절하고, 자아정체성을 이루는 데에 성공하거나 실패하게 된다. 즉 개인적인 정체성과 사회적인 정체성 사이에, 그리고 자아와 역할 사이에 처한 주체의 모습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체 Subjekt'의 과제와 문제성은 20세기 전환기 당시에도, 백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중요한 주제이며 또한 계속해서 반복되어 새로이 진행되기에 여전히 현재적이다. 본고에서 다룬 소설들의 생명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IP: 165.***.117.111 | Accessed 2017/11/07 17:38(KST)

■ 참고문헌

1차 문헌

Hesse, Hermann(1970): Unterm Rad, Stuttgart.

Musil, Robert(2000): Die Verwirrungen des Zöglings Törleß, Reinbek bei Hamburg.

2차 문헌

신혜선(2013): 20세기 전환기 독일 학교소설-문화사회사적 관점에서 살펴본 '학교소설' 장르의 이해, 세계문학비교연구 42, 393-412.

은정윤(2007): 신역사주의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학교와의 불화, 헤세연구 18, 25-48.

홍길표(2011): 근현대 예술가의 사회적 위치에 관한 자기이해. 헤르만 헤세의『수레바퀴 아래서』와『데미안』소고, 뷔히너와 현대문학 37, 151-172.

Aufmuth, Ulrich(1979): Die deutsche Wandervogelbewegung unter soziologischem Aspekt, Göttingen.

Bernfeld, Siegfried(1970): Antiautoritäre Erziehung und Psychoanalyse, Frankfurt a. M.

Blasberg, Corneli(Hrsg.)(2003): Hermann Hesse 1877-1962-2002, Tübingen.

Erdheim, Mario(1984): Die gesellschaftliche Produktion von Unbewusstheit, Frankfurt a. M.

Gumbrecht, Hans Ulrich(1978): Modern, Modernität, Moderne. In: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Historisches Lexikon, Hg. v. Reinhart Koselleck u.a. Bd. 4. Stuttgart, 93-131.

Gutjahr, Ortrud(1997): Jugend als Epochenthema um 1900. In: Adoleszenz, Hg. v. Johannes Gremeritus, Würzburg, 117-148.

Herrmann, Ulrich(1985): Die Jugendkulturbewegung. Der Kampf um die höhere Schule. In: »Mit uns zieht die neue Zeit-« Der Mythos Jugend, Hg. v. Thomas Koebner u. a. Frankfurt a. M., 224-244.

King, Vera(2002): Die Entstehung des Neuen in der Adoleszenz. Individuation, Generativität und Geschlecht in modernisierten Gesellschaften, Opladen.

Kolk, Rainer(2003): „Ja, begeisternd ist der Anblick aufstrebender Jünglinge." Das Versprechen der Jugend zwischen Vormärz und Moderne. In: 1848 und das Versprechen der Moderne. Hg. v. Jürgen Fohrmann u. Helmut J. Schneider,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IP: 165.***.117.111 | Accessed 2017/11/07 17:38(KST)

Würzburg, 15-32.

Minder, Robert(1962): Kadettenhaus, Gruppendynamik und Stilwandel von Wildenbuch bis Rilke und Musil. In: Ders.: Kultur und Literatur in Deutschland und Frankreich. Fünf Essays, Frankfurt/Main, 76-95.

Mix, York-Gothart(1995): Die Schulen der Nation, Stuttgart.

Peukert, Detlev J. K.(1986): Grenzen der Sozialdisziplinierung. Aufstieg und Krise der deutschen Jugendfürsorgen von 1878 bis 1932, Köln.

Peukert, Detlev J. K.(1990): »Mit uns zieht die neue Zeit …« Jugend zwischen Disziplinierung und Revolte. In: Jahrhundertwende. Der Aufbruch in die Moderne 1880-1930, Bd. I. Hg. v. August Nitschke u. a. Reinbek bei Hamburg, 176-202.

Titzmann, Michael(2002): >Grenzziehung< vs. >Grenztilgung<. Zu einer fundamentalen Differenz der Literatursysteme >Realismus< und >Frühe Moderne<. In: Weltentwürfe in Literatur und Medien. Phantastische Wirklichkeiten – realistische Imaginationen. Festschrift für Marianne Wünsch, Hg. v. Hans Krah, Claus-Michael Ort, Kiel, 181-209.

Ulbricht, Justus H.(2000): Jugendkult, Reformpädagogik und Jugendbewegung zu Beginn des Jahrhunderts des Kindes. In: Der Deutschunterricht 52, Seelze, 37-47.

Viktor, Žmegač(Hrsg.)(1981): Zum literarischen Begriff der Jahrhundertwende, Königstein/Ts.

Wilke, Tobias/Kimmich, Dorothee(2006): Einführung in die Literatur der Jahrhundertwende, Darmstadt.

Zeller, Rosmarie(2001/2002): Grenztilgung und Identitätskrise. Zu Musils Törleß und Drei Frauen. In: Musil-Forum. Studien zur Literatur der klassischen Moderne, Berlin/New York, 189-209.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IP: 165.***.117.111 | Accessed 2017/11/07 17:38(KST)

■ Zusammenfassung

Adoleszenz als Metapher für die Moderne

– In Hesses *Unterm Rad* und Musils *Die Verwirrungen des Zöglings Törleß* –

Shin, Hyeseon (Hankuk Univ. Foreign Studies)

Die adoleszenten Protagonisten der um die Jahrhundertwende entstandenen Schulromane erscheinen als Entwurf der Moderne. Sie verkörpern den signifikanten Widerspruch der Moderne zwischen 'Individualisierung und Normierung': Bewältigen oder Nicht-Bewältigen der Krise und Gelingen oder Misslingen der Bildung einer Ich-Identität.

Beispielhaft können in den behandelten Schulgeschichten *Unterm Rad* und *Die Verwirrungen des Zöglings Törleß* und den darin beschriebenen adoleszenten Prozessen gewissermaßen die vielfältigen Facetten der Moderne abgelesen werden.

Die gesellschaftliche Modernisierung prägt sich hier vor allem in ihrer Ambivalenz aus: Fortschritt und Rückschritt, Anbeten der Krankheit oder der Vitalität, Gewinn und Verlust. Dabei werden diese Merkmale im Sinne der Liminalität oder "Scharnierbedeutung" der adoleszenten Lebensphase mehrfach analog zur Moderne in den Schulgeschichten ausgestaltet. Unter diesem Blickwinkel stellt Adoleszenz oder 'moderne Jugend' in der Schulgeschichte nicht nur den Verlauf des physisch-psychischen Entwicklungsvorgangs des Individuums dar, sondern zugleich den Entwurf eines zwischen Individuum und Gesellschaft stets neu auszuhandelnden Spielraums.

【주제어】 청(소)년, 모더니즘, 헤르만 헤세, 로베르트 무질, 수레바퀴 아래서, 퇴를레스

【Schlüsselbegriffe】 Adoleszenz, Moderne, Hermann Hesse, Robert Musil, Unterm Rad, Törleß

【필자 E-Mail】 hyeseons@hotmail.com

논문 투고일: 2016.04.29. 논문 심사일: 2016.05.25. 게재 확정일: 2016.05.31.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IP: 165.***.117.111 | Accessed 2017/11/07 17:38(KST)